

패수(溟水)·열수(列水)에 대한 고찰

황순종(고대사 연구가)

차 례

1. 서론-패수에 대한 기존의 학설 검토
2. 열수와 패수는 같은 강
3. 패수는 지금의 백하-조백하-조백신하
4. 후일의 패수도 같은 강
5. 결론

1. 서론 : 패수에 대한 기존의 학설 검토

패수는 우리 고대사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명 가운데 하나인 점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고대사를 다룬 주요한 학자들은 모두 패수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견해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강들이 옛 패수로 비정되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1) 한반도 북부설

패수나 열수를 한반도 북부의 강으로 보는 것이 지금 학계의 움직임일 수 없는 정설로 되어 있으며 다만 이를 압록강·청천강·대동강의 어느 것으로 보느냐 하는 점에서는 견해가 갈린다. 이런 점은 근대 이래 일본 학자들의 견해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북부의 강들은 패수라고 보기 어렵다. 그 근거는 무수히 많지만 몇 가지만 제시하는 것으로 지면을 아끼도록 하겠다.

첫째, 패수는 한나라 초기 연나라와 조선과의 경계였는데, 이에 대해 가장 근접한 시기의 기록인 『사기』 「조선열전」에는 이렇게 기록했다.

“한나라가 일어나 그곳이 너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에 이르러 경계를 삼았다.”¹⁾

한나라가 이전에 조선과의 경계 지역을 지키기 어려워 조금 후퇴하여 패수를 경계로 삼았는데 그곳이 요동이라 했다. 그러므로 패수는 요동을 흘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만이 이 연나라의 요동에서 패수를 건너 조선으로 망명한 것에 대해 「조선열전」에, “동쪽으로 달아나 요새를 나와 패수를 건넜다(東走出塞, 渡溟水).”고 했다. 이것은 연나라의 동쪽에 패수 건너 조선이 있었다는 뜻이다. 연나라의 동쪽에 조선이 있다는 기록은 한나라 이전 전국시대의 소진(蘇秦)의 말에서도 알 수 있으니, 『사기』 「소진열전」에 “연의 동쪽에 조선의 요동이 있다(燕東有朝鮮遼東).”고 했다.

이렇게 동쪽의 조선으로 온 위만이 기존 세력을 몰아내고 도읍한 곳을 「조선열전」에는 ‘왕험(王險)’이라고 했다. 이 왕험에 대해 『사기색은』에는 신찬(臣瓚)의 말을 인용하여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고 했다.²⁾ 즉 위만이 동쪽으로 와서 도읍한 곳 역시 패수의 동쪽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패수가 한반도의 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한다. 압록강에서 대동강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강들은 동서로 흐르며 그 강들을 지나오려면 위 기록들처럼 ‘동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와야 조선이 되며, 위만의 도읍 왕험이라는 지금의 평양 또한 당연히 패수의 ‘동쪽’에 있을 수 없고 ‘남쪽’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선열전」에 기록한 패수는 그 흐름이 한반도의 강들과는 달리 남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동쪽에 조선이나 왕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험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사기색은』에 서광(徐廣)이 ‘창려군 험독현’이라고 하고 응소(應昭)가 ‘「지리지」의 요동군 험독현’이라 주석했는데,³⁾ 『사기집해』에도 서광의 말을 인용했다. 응소나 서광이 말한 요동군이나 창려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지 않았으므로, 왕험이 지금 북한의 평양이었다는 학계의 정설은 「조선열전」의 기록과 맞지 않는 허구에 불과하다.

둘째, 패수는 낙랑군을 흐르는 강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위 「조선열전」에 요동의 강임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서』 「지리지」를 보면 패수가 낙랑군만

1) 『사기』 「조선열전」: “漢興爲其遠難守, 復修遼東古塞, 至溟水爲界.”

2) 『사기색은』 「조선열전」: “臣瓚云, 王險城在樂浪郡溟水之東也.”

3) 위와 같음: “徐廣曰, 昌黎有險瀆縣. 應劭注, 地理志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

이 아니라 요동군도 지나는 사실을 명확히 기록했다. 즉 ‘낙랑군’ 조를 보면 “패수현, 강물이 서쪽으로 증지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으며⁴⁾, ‘요동군’ 조에는 “번한현, 패수가 해외(塞外)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고⁵⁾ 되어 있다. 이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패수의 상류가 요동군 번한현이고 최하류가 낙랑군 패수현·증지현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패수가 이와 같이 요동·낙랑의 두 군을 지난다면 한반도의 강들은 패수가 될 수 없다. 다만 압록강만은 지금 요동과 평안북도의 경계를 따라 흐르니 두 군을 지난다고 주장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위에 지적한 대로 동서로 흐르는 압록강은 남북으로 흘러야 하는 「조선열전」의 패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패수가 압록강이라면 그 남쪽의 청천강이나 대동강이 같은 낙랑군에 있던 열수가 되는데, 『산해경』에 이 열수가 요동에 있었다고 하니 청천강이나 대동강 지역까지 요동이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열수와 관련된 지명에 ‘열양(列陽)’과 ‘열구(列口)’가 있는데 이 위치를 확인하면 열수가 어디 있었는지 드러난다. 먼저 열양에 대해서는 『산해경』 「해내북경」에 이렇게 기록했다.

“조선은 열양의 동쪽,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다. 열양은 연나라에 속한다.”⁶⁾

연나라의 열양(열수의 북쪽) 동쪽에 조선이 있다고 했다. 열수가 대동강이라면 그 북쪽인 열양이 평양이라는 말이 되며 그곳이 연나라라는 것이 된다. 학계에서는 평양이 조선이라고 하는데, 산해경에 따르면 그 동쪽이 조선이어야 하므로 동해 쪽 옥저가 있었다는 곳이 조선이라는 모순된 결과가 된다. 또 조선이 바다의 북쪽이라고 했으므로 발해나 황해의 북쪽인 하북성이나 요녕성을 말하므로 열양의 동쪽이 되지만, 평안도 지역은 바다의 북쪽이 될 수도 없으며 열양의 동쪽도 될 수 없다.

다음에 열구에 대해서는 「조선열전」에 한나라에서 위만조선을 침략할 때 육군과 수군을 모두 보냈는데, 수군은 ‘제(齊)나라를 따라 발해에 떠서(從齊浮渤海)’ 열구에 도착했다. 이 열구에 대해 『사기색은』에 소림(小林)의 말을 인용하여 “현 이름으로 바다를 건너 처음 이르는 곳이다(縣名而渡海初至處).”라고 했다. 즉 제나라 연안을 따라 바다(발해)를 항해하여 서쪽이나 북쪽의 연안에 있는 열구현에 도착했다는 말이다.

4) 『한서』 「지리지」 낙랑군 : “沮水縣, 水西至增地入海.”

5) 『한서』 「지리지」 요동군 : “番汗縣, 沛水出塞外, 西南入海.”

6) 『산해경』 「해내북경」 :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

그러므로 위만조선이 망한 뒤 낙랑군에 속한 이 열구현은 한반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도는 「조선열전」의 ‘발해’를 ‘황해’ 또는 그냥 ‘바다’로 설명하여⁷⁾, 한나라 수군이 황해바다 건너 열수인 지금의 대동강 입구로 왔다고 주장한 이후 학계에서 별다른 반론도 없이 정설이 되어 있다. 그러나 17세기 중국의 저명한 고증학자 고염무는 『일지록』 ‘해사’ 조에서, 위 ‘從齊浮渤海’에 대해 ‘산동에서 바다를 통해 요동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으며⁸⁾, 비슷한 시기의 지리학자 호위(胡渭)도 ‘발해’가 지금의 발해라고 하며 한나라 때의 발해군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⁹⁾

문성재는 『한사군은 중국에 있었다』(2016)에서 이러한 고염무와 호위의 설을 인용한 뒤, 한나라 때 항해 기술수준이 연안을 따라가는 연안항해에 머물렀음을 강조하며 이병도의 황해를 건넜다는 터무니 없는 설을 이렇게 일축했다.

“한대(漢代)에 아무리 항해술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황해같은 망망대해를 심지어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누선(樓船)을 몰고 달랑 돛 몇 개만 믿고, 그것도 7,000명이나 되는 대병력을 태우고 횡단해 건넌다는 것은 선장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야말로 자살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¹⁰⁾

지금까지 본 패수·열수는 『사기』 「조선열전」, 『산해경』, 『한서』 「지리지」에 모두 요동에 있다고 했으나, 이병도는 「패수고」에서 “양 하천을 마음대로 요동 방면의 어떤 하천으로 비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일설로 둘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¹¹⁾ 중국의 1차 사료들에 모두 요동이라고 했는데도, 요동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이니 이것이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비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든든한 후원자인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니, 일제강점기에 이런 글을 쓴 것이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하자면, 패수는 백제의 시조 온조왕이 고구려에서 내려올 때 건넜던 강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온조왕」 조의 주석에는 그가 패수·대수의 두 강을 건넜다고 기록했다. 대수(帶水)는 『한서』 「지리지」에 낙랑군 함자현을 지나는 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낙랑군의 패수보다 남쪽에 있었다고 하겠다. 위에서 낙랑군을 흐른 패수·열수가 한반도의 강이 아니었으므로 대수도 마찬가지로 수박에 없다. 만약에 학계의 정설대로 온조왕이 고구

7) 이병도는 일제강점기인 1933년의 「패수고」에서 ‘발해(황해)’라고 괄호 속에 황해라고 써넣었으나, 2012년에 나온 『이병도전집』 제3권에 실린 『한국고대사연구』(초판 1975, 수정판 1984)에서는 이 발해를 그냥 ‘바다’라고 쓰고 황해를 건너 대동강으로 왔다고 했다.

8) 顧炎武, 『日知錄』 「海師」: “漢武帝遣樓船將軍楊僕, 從齊浮渤海擊朝鮮, … 此山東下海至遼東之路.”

9) 문성재, 『한사군은 중국에 있었다』, 109쪽

10) 위와 같음, 109~110쪽

11) 이병도, 「패수고」, 『한국고대사학회사론고』, 한국학술정보, 2012, 259쪽

려의 졸본이라는 압록강 북쪽에서 내려오자면 평안도에 있었다는 낙랑군을 거쳐와야 한다. 침략자인 낙랑군에서 고구려를 창건한 주몽의 부인과 아들들 일행의 대집단을 곱게 통과시켜 주었을 리가 없다. 온조왕이 건넌 패수·대수는 북한 지역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온조왕 13년 조에 보이는데,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라의 동쪽에 낙랑이 있고 …’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것은 온조왕이 패수·대수의 두 강을 건너 남하하여 세운 백제의 동쪽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될 수 없다. 만약 이병도 이후 학계의 정설에 따른다면 낙랑군은 지금의 평안도·황해도였고 백제는 그 남쪽의 한강 유역에 있었으므로, 백제의 동쪽이 아니라 북쪽에 낙랑군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대륙설

패수가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설은 민족사학자 신채호·정인보 선생 등과 북한의 리지린, 그리고 학계에서 유일하게 윤내현 교수가 대표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그 견해들은 지금의 요녕성 지역으로 보면서도 요동의 현 우락으로부터 요서의 대능하를 거쳐 그 서쪽의 난하에 이르기까지 설이 엇갈려 있었다. 근래에는 재야의 연구자들 중 더 서쪽인 하북성의 조백하(潮白河)가 패수라는 설도 제기되었는데, 필자 또한 연구 결과 이 설을 정확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른 설들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비판을 생략하고 조백하설에 대해서만 약술하겠으며, 필자의 견해는 본론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패수를 지금의 조백하로 본 학자로는 심백강이 있다. 그는 지금 북경의 북부를 흐르는 조하(潮河)를 조선하(朝鮮河)로 기록한 북송(北宋)대 이후의 세 기록을 근거로¹²⁾, 지금의 조하가 옛 패수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지금의 조하가 옛 조선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그 조선하가 국경인 패수였다고 본 것은 절반의 타당성만 있다고 본다. 다른 말로 하면 조하는 중간에 북경의 밀운저수지에서 백하(白河)와 합류하여 조백하가 되는데 필자는 이 조백하 부분이 옛 패수로서 그 상류는 조하가 아니라 백하였다고 보기 때문인데 뒤에 다시 볼 것이다.

심백강은 『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2014)에서 조하를 패수로 본 5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하나는 조하의 발원지인 ‘하북성 풍녕만족자치현 조

12) 북송(北宋)대 증경량의 『무경총요(武經總要)』와 왕증의 『왕기공행정록(王沂公行程錄)』, 원(元)대 옹몽상의 『석진지집일(析津志輯佚)』이 그것이다.

하원촌'을 『수경』에서 패수의 발원지라고 한 '낙랑군 누방현'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낙랑군은 발해 연안으로부터 조하의 발원지인 조하원촌까지 이르는 광대한 군이 아니라 지금의 천진(天津)을 중심으로 발해 연안에 길다란 모양의 군이었다. 이점은 뒤에 논할 것이다. 다만 심백강이 조하(조신하)를 패수로 본 내용 중 백하와 합류하는 조백하로부터는 패수로서 타당하다고 하겠다.



〈지도1〉 『수경』에 표시된 중국 동북 지역의 강들(괄호 안의 강 이름이 『수경』에 표시된 이름임)과 군들의 위치 추정.

2. 열수와 패수는 같은 강

『사기』「조선열전」의 패수는 발해만의 서안 내지 서북안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강으로 나타남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이 위만조선의 멸망 후 낙랑군에 속했는데 그 위치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같은 낙랑군을 흐른 열수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나라 수군이 위만조선을 침략할 때 열수의 하구인 열구로 상륙했기 때문이다.

이 열수는 『산해경』에 요동에 있다고 했는데, 『후한서』「군국지」의 '열구'에 대해 광박이 『산해경』을 인용해 열수가 요동에 있음을 재확인했다.¹³⁾ 그런데

『한서』「지리지」낙랑군 조에는 “탄열현, 열수가 나와 서쪽으로 점제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해보면 열수는 패수와 마찬가지로 요동군을 지나 낙랑군을 거쳐 바다(발해)로 들어가는 강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열수나 패수가 지나는 요동이나 낙랑군은 지금의 요동이나 북한의 낙랑이 아니라는 점으로, 학계의 정설이 잘못임을 보여준다.

열수는 위 『한서』「지리지」에 낙랑군의 탄열현과 점제현을 지난다고 했으나, 『사기집해』에는 낙랑의 치소인 조선현을 지난다고 했다. 즉 『사기집해』에 장안(張晏)의 말을 인용하여 “조선현에 습수·열수·선수가 있는데 이 세 강이 합하여 열수가 된다(朝鮮有濕水·列水·仙水, 三水合爲列水).”고 했다. 그런데 중국의 강들에 대해 집대성한 『수경』의 권13은 탐수(溧水)에 대해 기록했는데, 중국의 진교역(陳橋驛)은 『수경주』의 판본 중에는 이 탐수를 습수라고 한 것도 있다고 했다.¹³⁾ 이 강의 상류는 지금의 상건하, 하류는 영정하로서 북경의 남부를 지난다는 사실은 『중국고금지명대사전』에도 나오는 공인된 설이다. 그러므로 <지도 1>의 영정하가 바로 위 장안이 말한 습수로서 조선현을 흐르는 강임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수경』권14의 처음에 습여수(濕餘水)가 나오는데 이 강은 권13의 탐수(즉 습수)와 하류인 지금 천진 서부에서 합류하는 지류로서 <지도 1>의 지금의 북운하(北運河)이다. 습여수란 이름이 습수의 지류인 데서 나온 것이므로, 탐수를 습수라고 한 진교역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습여수는 장안이 말한 세 강 중 두 번째인 선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강 중 나머지 하나인 열수는 습여수 다음에 기록된 고하(沽河)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강은 습여수 바로 위쪽을 흐르다가 하류에서 습여수 및 탐수(습수)와 만난다. <지도 1>의 고하는 지금도 쓰고 있는 이름이며 또한 백하(白河)나 해하(海河)로 부른다.

이 세 강은 모두 지금 북경을 지나며 동남쪽으로 흘러 천진의 서부 무청구 부근에서 합류하여 대고(大沽)에서 발해만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세 강이 만나는 무청구 부근이 낙랑군 조선현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바다로 들어가는 대고가 바로 「조선열전」에서 한나라 수군이 발해를 건너 이르는 열구현이 된다. 이와 같이 낙랑군 전체는 천진 일대로 발해 서(북)안으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사실을 『한서』「지리지」의 기록으로 재확인해 보겠다.

13) 『후한서』 「군국지」 ‘낙랑군·열구’에 대한 주석 : “山海經云, 列水名, 列水在遼東.”

14) 陳橋驛의 『水經注校證』(2007, 중화서국) 서문(16쪽) 참조.

낙랑군에는 태수를 보조하는 동부도위와 남부도위의 두 도위가 있었다. 그런데 『한서』 「지리지」를 보면 낙랑군 이외에 동북방의 유주와 북방의 병주에 속한 나머지 14개 군에는 동부·남부의 두 도위를 둔 예가 없다. 도위를 2명 둔 다른 8개 군에는 모두 동부·서부의 두 도위를 두었으며, 3명인 경우의 요동 등 4개 군에는 중부도위가 추가되었다. 유독 낙랑군에만 동부·남부도위를 둔 것은 낙랑군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낙랑군이 발해의 서안에서 서북안으로 연결되는 지금의 천진 지역에 「자」 모양으로 위치했기 때문인데, 이는 위의 열수를 통해 본 낙랑군의 위치와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열수는 지금 북경의 북쪽을 지나는 백하(해하)로서 순의구 북쪽에서 조하와 만나 조백하가 되는데, 이 백하와 조백하까지를 역시 패수라 하여 조선과 한나라의 경계였던 강이다. 이 조백하는 하류에 오면 두 갈래로 흐르는데 한 갈래는 남쪽으로 북운하가 되어 최하류의 천진에서 영정하와 만나 동남쪽으로 대고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옛 열수이다. 다른 한 갈래는 동남쪽으로 흘러 조백신하가 되어 대고보다 약간 북쪽에서 바다에 이르는데 이것이 옛 패수에 해당한다. 결국 열수나 패수는 상·중류까지 같은 강으로 <지도 1>의 지금의 백하-조백하를 말하며, 하류에서는 둘로 나뉘어 열수는 지금의 북운하 -영정하와 합해지며 패수는 그 동쪽의 조백신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열수는 하류에서 조선현을 지나지만 패수는 조선현이 아니라 위 한서에 기록한 점제현에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한나라 수군이 왜 열수의 입구인 열구로 갔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시 패수가 경계였으므로 패수의 동쪽에 있는 왕험성을 공격하려면 상식적으로 패수보다 동쪽에 있는 강으로 상륙해야 할 텐데, 패수보다 서쪽인 열수로 상륙했다는 것은 그곳이 한나라 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가 조선과 경계한 패수 지역은 낙랑군이 있기 전의 요동군이었으며 그곳은 지금 북경 중부 지역으로 조백하 유역에 해당한다. 패수나 열수의 하류인 지금의 천진 일대는 조선의 영역이었기에 패수의 동쪽이 아닌 열수로 상륙작전을 펼 수 있었던 것이며, 그곳을 후에 한나라가 차지하여 낙랑군이 된 것이다.

3. 패수는 지금의 백하 -조백하 -조백신하

위에서 이미 패수에 대한 결론은 말한 셈이 되었지만 여기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타당성을 논하기로 하겠다. 『사기』 「조선열전」에는 패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그 흐름이 동서가 아니라 남북이라는 정도는 알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만한 내용은 한나라 육군이 당초 위만조선의 ‘패수 서군(西軍)’을 치다 실패했으나, 후에 다시 ‘패수 상군(上軍)’을 파하고 왕험성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학계의 정설은 패수를 한반도로 보아 패수서군은 패수의 하류, 패수상군은 상류로 보았다. 그러나 패수가 대륙에 있어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흐른다면 패수의 서군이나 상군은 대략 같은 곳으로 그쪽이 국경이고 패수의 하류는 국경 지역이 아님 조선임을 짐작할 수 있다.

패수의 흐름이나 위치를 말하는 1차적 자료로는 『한서』 「지리지」와 『수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패수의 흐르는 방향에 대해 두 기록이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를 어렵게 한다. 앞에서 보았지만 『한서』 「지리지」 ‘요동군 변한현’ 조에는 “패수(沛水)가 해외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고 하였고, ‘낙랑군 패수(溟水)현’ 조에는 “강물이 서쪽으로 증지현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간다.”고 했다. 두 패수의 ‘패’자가 한자가 다르지만 요동과 낙랑을 동시에 흐르는 같은 강으로 보이는데 학계에서도 특별한 이론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패수가 서쪽이나 서남쪽으로 흐른다고 했으나, 『수경』권14 패수 조에는 흐름을 반대로 이렇게 기록했다.

“패수는 낙랑 누방현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임패현을 지나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요동군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임패현은 『한서』 「지리지」나 후대 역사서에도 보이지 않으므로 착오로 보이는데¹⁵⁾, 패수현을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중요한 것은 패수의 흐름이 동남쪽 또는 동쪽으로 『한서』와는 정반대라는 점인데, 한 쪽이 거짓인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수경』과 거의 같은 내용이 『설문해자』 ‘패(溟)부’에 있으니, “패수는 낙랑 누방현에서 나와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고 했다. 여기에는 임패현을 지난다는 내용이 빠졌는데, 이는 『수경』의 잘못을 알고 올바르게 기록한 것으로 보겠다. 또 『설문해자』와 『수경』은 왕조에서 편찬한 정사(正史)가 아니므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후대에 변조했을 가능성이 적은 반면, 『한서』는 정사로서 이른바 중화사관에 따라 그럴 가능성이 높는데 편찬될 당시보다는 후에 ‘동’을 ‘서’로 바꿔 변조한 것이 아닐까 추론한다.

한편 『수경주』에는 『한서』와 유사하게 패수의 흐르는 방향을 서쪽 또는 서북쪽으로 주석하며, 『수경』의 기록을 착오라고 했다. 그러나 저자 역도원의 주

15) 삼백강은 임패현에 대해 『수경주석(水經注釋)』의 저자 일청이 “어디에서 이런 이름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이 『수경』 중에서 제일 의심되는 부분이다.”라고 했다고 한다(『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 28쪽).

석은 타당성이 전혀없다. 첫째, 그는 문헌에 의하여 논한 것이 아니라 북위에
와 있던 고구려 사신의 말을 인용하여 단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부족하
다. 더구나 고구려 사신의 말했다는 내용이 문헌의 기록과 달라 믿을 수 없는데,
역도원은 『수경주』권14 패수 조에 이렇게 썼다.

“내가 고구려 사신을 방문하니 말하기를, ‘(평양)성은 패수의 북쪽에 있다.’고 하
였다. 그 강은 서쪽으로 흘러 옛 낙랑군 조선현을 지나는데 곧 낙랑의 군치(郡
治)로서 한 무제가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서북쪽으로 흐른다.”¹⁶⁾

고구려 사신이 평양성이 패수의 북쪽에 있다고 말했다고 썼으나 이는 믿기
어렵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대동강은 결코 패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인
데, 만약 위만조선 당시 대동강이 국경인 패수였다면 그 북쪽의 왕험(학계에서
말하는 지금의 평양)은 위만조선이 아니라 한나라의 강역이었다는 뜻이므로 이
는 성립할 수 없는 논리이다. 그러기에 학계에서도 대부분 청천강·압록강을 패
수로 보아 그 남쪽에 평양이 오도록 하고 그 남쪽의 대동강은 열수로 본다. 사
정이 이러한데도 역도원은 대동강이 패수라는 터무니 없는 거짓으로 『수경』의
올바른 기록을 착오로 몰았다.

또한 고구려의 평양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요동에 있었다. 고구려의 평양
이 어디였는지 여기서 상세히 논할 수는 없지만, 평양이 지금의 요동에 있었던
근거 한 가지만 들겠다. 612년에 수 양제가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압록수를
건너) 동쪽으로 나아가 살수를 건너 평양성에서 30리 되는 곳에’ 진영을 베풀
었다고 했다(『삼국사기』「고구려본기」영양왕 23년 조). 여기의 압록수를 학계의
정설대로 지금의 압록강으로 본다면, 압록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면 살수라는
청천강에 이를 수 있을까? 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남쪽’으로 와야만 청천강에
이를 수 있음은 상식이다. 그러므로 압록수나 살수는 한반도의 강이 아니라 요
동에 있었다. 『삼국유사』「법흥」‘순도조려’ 조에 “요수는 일명 압록인데 지금은
안민강이라 말한다.”고 했다. 즉 지금의 요하가 압록수였으므로 이를 건너 ‘동
쪽’에 살수가 있고 그 건너 평양이 있었다는 것으로, 지금의 요동임을 알게 된
다.

또 고구려 사신이 평양이 어딘지 몰랐을 리는 없으니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
겠으나 역도원이 사신의 말을 왜곡하여 옳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는 『수
경주』권14에서 패수는 물론 그 앞의 유수·대요수·소요수를 『수경』에서 말한 강
들과는 멀리 동쪽에 있는 다른 강들로 조작하여, 요서군·요동군을 지금의 요녕

16) 역도원, 『水經注』 권14 패수 : “余訪蕃使,言城在泚水之陽. 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即樂浪郡治漢武帝置,而西北流.”

성인 것처럼 만들고 낙랑군은 평안도로 갖다 놓았다.¹⁷⁾ 그 결과 권13,14에 기록된 7개의 강은 지금 북경 부근으로부터 평안도까지 수천 리에 걸쳐 드문드문 흩어지고 말았다. 『수경』이 웬만한 지류까지 다 기록한 책인데 권14에서만 수천 리에 있는 허다한 강들을 모두 생략하고 7개만 실었을 리는 만무하다. 이런 역도원에게 고구려 사신의 입을 빌어 거짓말하는 것 쯤이야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위 인용문에 패수에 대해 서술한 내용도 맞지 않다. 패수가 조선현을 지난다고 했으나 『한서』·『수경』·『설문해자』등 모든 문헌에 앞에서 보았듯이 조선현을 지난다는 기록은 없으며, 열수가 조선현을 지난다는 기록만 있다. 또 대동강을 패수로 단정하여 그 흐름을 서쪽 및 서북쪽이라고 했으나 이것도 그의 창작에 불과하다. 실제로 대동강은 서남쪽으로만 줄곧 흐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수경주』는 조작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역도원은 패수 조의 마지막에 『한서』 「지리지」의 “패수현, 강이 서쪽으로 증지현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간다.”는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것도 그 구절이 변조된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 패수를 대동강인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역도원은 위 인용문의 앞에 “만약 패수가 동쪽으로 흐른다면 패수를 건너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것은 대동강이 서쪽으로 흐르므로 위만의 도읍 왕험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동강(즉 패수)을 건너게 되지만, 만약 대동강이 동쪽으로 흘러 동해로 들어간다면 왕험성(즉 지금의 평양)에 가는데 강을 건널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해석으로, 그가 학자로서의 냉정함을 잃고 자신의 주장과도 어긋나는 말을 하고 만 것이다. 고구려 사신까지 끌어들이며 평양이 패수(대동강)의 북쪽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청천강으로부터 남쪽으로 오면 평양이 되므로 대동강의 흐름에 상관 없이 건널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역도원이 패수나 왕험성을 무조건 대동강과 평양으로 정해놓고 억지 주장을 하려다 보니 이런 치졸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중화사관에 따라 역사를 수없이 조작해 온 중국의 전통에 충실히 따른 비근한 예가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패수의 흐르는 방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수경』이나 『설문해자』의 기록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앞 2항에서 열수와 패수에 대해 필자가 비정한 결과를 뒷받침해 보았다. 이제 『수경』권13 및 권14의 강들이 지나가는 군현들을 <지도 1>에서 간략히 검토하여 마지막에 기록된 패수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로 하겠다. 앞 2항에서 이미 본 탐수(영정하)는 지금 북경시의 서

17)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식민사관의 감춰진 팬얼굴』(2014) 197~200쪽 참조

남부를 지나며, 습여수(북운하)와 고하(백하)는 각각 그 북쪽인 북경시의 (서)북쪽에서 시작하여 중앙 지역을 관통한다. 『수경』에는 이 강들이 만나는 북경 중남부가 옛 어양군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기록된 포구수도 주로 어양군을 지나는데 지금의 노하로 추정되며, 북경 동남쪽으로부터 천진 서쪽에 이른다. 다음의 유수는 요서군의 영지현을 지나 해양현을 지난다고 했는데 지금의 청룡만하로 추정된다. 청룡만하는 바로 위에 언급한 노하의 약간 북쪽에서 노하와 대략 평행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어양군의 북쪽에 요서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지역 또한 북경 동남쪽에서 천진 서쪽에 걸쳐 있다.

다음의 대요수는 요동군의 여러 현을 지나는 중요한 강이므로 『수경』원문을 인용기로 하겠다.

“대요수는 새외의 백평산을 나와 동남쪽으로 요새로 들어온다. 요동 양평현 서쪽을 지나고 또 동남쪽으로 방현 서쪽을 지난다. 또 동쪽으로 안시현 서쪽을 지나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또 현도군 고구려현에 요산이 있어 소요수가 나오는데, 서남쪽으로 요대현에 이르러 대요수로 들어간다.”¹⁸⁾

대요수가 요새로 들어와 요동군 양평현을 지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양평현에 대해 『한서』「지리지」‘요동군·양평’ 조에 “왕망이 창평이라 했다(莽曰昌平).”고 했는데, 지금 북경의 서북쪽에 창평구가 있으므로 그곳이 옛 양평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사기』「흉노열전」의 아래 기록이다.

“연나라 역시 장성을 쌓았는데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렀다. 상곡·어양·우북평·요서·요동군을 두어 호(胡)에 대비하였다.”¹⁹⁾

이 연나라의 장성을 학계에서는 지금 북경의 북쪽에서 요동의 요양까지 동서로 쌓은 것이라 하나 이는 잘못이며, 실제로는 남북으로 쌓은 것이다. 『회남자』「인간훈」에는 “북쪽으로 요수와 만나며 동쪽으로는 조선과 국경을 맺는(北擊遼水,東結朝鮮)” 장성을 쌓았다고 했다. 즉 중국 북쪽에 동서로 길게 쌓은 장성이 요수에 와서는 동쪽의 조선과 국경을 따라 남북으로 쌓았다는 것이다. 위 「흉노열전」에 연 장성의 한 끝인 조양은 요서군 유성현이며²⁰⁾ 다른 끝은 요동

18) 『水經』 권14 : “大遼水出塞外衛白平山東南入塞。過遼東襄平縣西,又東南過房縣西,又東過安市縣西,南入於海。又玄菟高句麗縣有遼山,小遼水所出。西南至遼陰縣,入於大遼水也。”

19) 『사기』 「흉노열전」 : “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20) 조양은 『한서』 「지리지」에 보이지 않아 어느 군에 속한 지역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서호수의 『연행기(燕行紀)』 1790.7.7 조에 “조양현은 한나라에서 둔 유성현으로 요서군에 속했다(朝陽縣,漢置柳城縣屬遼西郡).”고 했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의 ‘조양현’과 ‘유성현’을 보면 인근 지역임이 확인되는데, 대능하 상류로 설명한

군 양평이므로 요수를 따라 남북으로 쌓은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요동이 요서의 동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었던 사실은 곧 이어 볼 것이다. 한 가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은 창평구가 대요수의 동쪽인 요동이 아니라 오히려 대요수의 가까운 서쪽에 있는 사실인데 이는 뒤에 다시 설명할 것이다.

위 『수경』의 인용문으로 돌아오면, 소요수가 서남쪽으로 흘러 요동군 요대현에서 대요수로 들어간다고 했다. 그런데 요동군은 그 이름으로 볼 때 요서군의 동(북)쪽으로 생각되지만 위에 본 요서 지역의 가까운 동쪽에 대요수·소요수처럼 만나는 두 강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요서 지역의 북쪽에서 찾으면 <지도 1>에 북경의 거의 중앙인 순의구 북쪽에서 Y자처럼 만나는 강이 있는데, 즉 백하와 조하로서 백하는 대요수이고 여기에 서남쪽으로 합하는 조하가 소요수라고 보겠다.

이렇게 보면 두 강이 만나는 밀운저수지 일대가 요동군 요대현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동)남쪽이 안시현으로, 요동군이 요서군의 동쪽이 아니라 북쪽임이 확인되는데 인용문에 안시현에서 남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고 한 부분이 조백신하이다. 또 인용문의 요동군 양평현·방현은 요대현에서 백하 상류 쪽으로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대요수가 양평·방·안시현들의 서쪽을 지난다고 했으므로 요동군은 대요수를 따라 그 동쪽이 되므로 요동군으로 칭한 것이다.

한편 위 인용문에 소요수가 현토군 고구려현의 요산에서 나온다고 했으므로, 현토군은 조하가 백하가 만나기 전의 요동군과 인접한 곳인데, 현토는 3개 현 밖에 없는 작은 군이었으므로 그 범위는 요동군 북쪽에 가까운 지역에 불과했을 것이다. 여기 현토의 고구려현은 그 이름으로 보아 이전의 고구려 땅이었음을 알려주는데, 현토가 서기 전 107년에 설치되었으므로 이때 이미 고구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서기 전 37년에 건국한 동명성왕의 고구려는 옛 고구려를 재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위치는 현토군(고구려현)과 요동군의 북쪽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유사』에 고구려의 도읍 졸본의 위치를 ‘요동’과 ‘현토’의 경계라고 한 데서 확인된다.²¹⁾ 즉 백하와 조하의 상류에 고구려가 있었다는 것으로, 온조왕이 거기서 패수·대수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와 낙랑군의 서쪽인 하북성 지역에 백제를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이 백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4항에서 다시 고찰하겠다.

『수경』권14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강이 패수인데 위에 본 대로 낙랑군을 지나는 강으로 간략히 설명하여 그 위치를 알기 어렵다. 위의 요동군과 함께 생

것은 후대에 읍진 지명으로 볼 것이다.

21) 『삼국유사』 「기이」 고구려 조의 서두에는 졸본주가 “요동의 경계에 있다.”고 했으며, 말미에는 ‘현토의 경계’라고 했다.

각해보면 국경인 패수는 대요수의 동쪽인 요동의 동쪽에 있는 강으로 보인다. 그러나 곧 이어 보겠지만 패수는 대요수 동쪽의 다른 강이 아니라 필자는 오히려 요동의 서쪽을 흐르는 위의 대요수와 같은 강으로 본다. 그 이유는 앞에 언급한 『사기』「흉노열전」에 전국시대 말에 연나라가 요동 등 5군을 두고 장성을 쌓았다고 했으나, 『사기』「조선열전」에는 서론에 언급한 대로 그후 한나라가 일어나 그곳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요동의 옛 요새로 후퇴하여 패수(즉 대요수)가 경계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멀어서 지키기 어렵다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으며 사실상은 우리 민족에게 패수 동쪽 요동의 대부분을 다시 빼앗긴 것으로 추정된다. 사마천이 가장 존경한 공자의 춘추필법으로 국가의 수치스러운 일을 숨기는 역사왜곡을 한 것이다. 『한서』「지리지」에 요동군에 18현이 있었으나 그 뒤 『후한서』에는 11현으로 준 것을 보면, 전한 초기 상황을 『한서』에 기록한 이후 줄어든 상황이 『후한서』에서야 파악되는 것이다. 그 뒤의 『진서』에는 요동에 8현밖에 없는데, 이는 중국이 동북방의 땅을 우리의 3국에 빼앗겨 가는 상황을 보여준다. 낙랑군도 당초 25현에서 후한 때 18 및 진(晉)나라 때 13(낙랑 6+대방 7)으로 줄었으며, 이는 상곡·어양·우북평·대·요서 등 동북의 모든 군들에 공통된 현상이다.

이런 사실을 보면 중국이 땅을 뺏길 때마다 동북방의 군현들을 재조정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빼앗긴 군 이름도 다른 군 지역에 이치하여 상징적으로 존속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대표적인 예로 갈석산을 들수 있는데 그 위치에 대해 『한서』「지리지」우북평군 조에는 ‘여성현’이라 하고, 『후한서』「군국지」요서군 조에는 ‘임유현’, 『진서』「지리지」낙랑군 조에는 ‘수성현’이라고 했다. 갈석산의 위치가 후대로 갈수록 점점 동북쪽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중국의 영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거꾸로 경계 지역의 갈석산이 동북쪽으로 더욱 멀리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진서』의 경우만 보더라도 ‘장성이 시작되는(秦築長城之所起)’ 낙랑군 수성현은 원래 진시황이 올랐던 요동군 양평현 부근의 갈석산 지역에 이치된 것으로, 한나라 때의 낙랑군 수성현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 필자의 논의를 정리하면 『수경』권14의 고하와 대요수 및 패수가 모두 같은 강으로 지금의 백하이며, 또 『수경』에는 열수라는 이름은 없지만 다른 문헌의 열수도 같은 강이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백하의 상류는 대요수였는데 소요수와 만난 이후의 조백하는 옛 요수이면서 패수라는 다른 이름도 갖게 된다. 조백하는 또 하류에서 둘로 갈라져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백신하는 앞에서 본 대로 계속 패수지만, 다른 하나는 고하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수경』의 이 세 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첫째, 고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다.

“고하는 해외에서 나오는데 남쪽으로 어양 호노현 북쪽을 지나고, 서남쪽으로 습여수와 합해 노하가 된다. 또 동남쪽으로 웅노현 서쪽에 이르러 사구가 된다. 또 동남쪽으로 천주현에 이르러 청하와 합해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²²⁾

이는 고하의 중·상류가 지나는 군현을 생략하고 하류의 어양군 호노·웅노·천주현을 기록한 것이다.

둘째, 대요수에 대해서는 요새 안으로 들어온 뒤의 요동군 양평·방·안시현에 대해 기록했는데 이는 중류에 대해 쓴 것이다. 셋째의 패수는 앞에 본 대로 “낙랑군 누방현에서 나와 임패현을 지나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는 최하류만 설명한 것으로 요동군을 지나는 부분을 생략한 것이다. 이렇게 세 강에 대해 하나의 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다른 이름으로 설명한 것이지만, 그 세 강이 전체로 같은 강이라는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히 북경과 그 남쪽 하북성 일대를 흐르는 수많은 강들은 본류와 지류들이 그물같이 얹히고 설켜 결국 천진에서 만나 크게 세 가닥으로 발해에 들어가기 때문인데, 따라서 지금의 백하도 옛 이름 그대로 고하라고도 하고, 또 해하라고도 하여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이 중 해하는 백하만의 이름이 아니라 천진에서 발해로 들어가는 모든 강들의 총칭으로 크게 5개의 강을 의미한다. 이 강들도 중하류에서 얹혀 모두 합하므로 해하로 부르지만 서로 합하는 부분마다 새로운 이름들이 생기므로 또한 갈피를 잡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지리적 정보의 정확한 전달도 어렵고 지도도 없으므로, 혼동과 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지금의 지도를 토대로 『수경』과 대조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그 강들을 추정할 수 있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지도와 맞지 않는 부분도 더러 있었다. 물론 필자가 부분적으로 잘못 파악한 것도 인정하지만, 다른 곳에서 위의 강들을 찾을 수는 없다고 확신한다.

다른 이유는 강들의 흐름이 시대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지도와 옛 기록을 대조하면 어느 정도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황하의 경우만 하더라도 하류의 물길이 여러 번 크게 바뀐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끝으로, 같은 강이라도 지역마다 사람들이 다르게 부를 소도 있고 또 시대에 따라 이름

22) 『수경』권14 : “沽河從塞外來,南過漁陽狐奴縣北,西南與濕餘水合爲潞河. 又東南至雍奴縣西爲筍口, 又東南至泉州縣,與清河合,東入於海.”

이 달라져 후세 사람들의 혼동과 착오를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 지도가 없던 옛날로 갈수록 그런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후일의 패수도 같은 강

위만이 건너온 요동의 패수는 낙랑군이 설치된 서기 전 108년 이후 요동과 낙랑을 흐르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후 서기 전 18년에 온조왕이 백제를 세울 때 패수와 대수의 두 강을 건너 남쪽으로 왔는데 그곳이 북한 지역이 될 수 없음을 제1항에서 보았다. 여기서는 온조왕이 건너 패수가 낙랑의 패수와 같은 강이었음을 논하겠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앞에서 본 대로 고구려가 북경 북쪽의 백하·조하 상류에 있었으므로 온조왕이 남쪽으로 패수·대수를 건널 때 한나라의 요동군이나 낙랑군을 지나 올 수는 없으므로 두 군의 사이에 있는 구간으로 건너온 것이다.

이렇게 요동·현토군과 낙랑군이 떨어져 있게 된 것은 한 무제가 요동·현토와 낙랑 사이에연접하여 둔 진번·임둔군이 26년만인 서기 전 82년에 <지도 1>처럼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병도는 없어진 진번·임둔의 절반씩은 낙랑군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여, “낙랑군은 구 진번군의 반(7현)과 구 임둔군의 반(7현)을 합한, 광역을 가진 대낙랑군을 형성하게 되었다.”²³⁾고 주장했다. 이는 『무릉서』를 근거로 이병도 자신의 생각을 더한 것이지만 믿기 어렵다. 『무릉서』는 한 무제 때 사마상여의 저술로 전해오지만, 사마상여(서기 전 179~118?)는 진번·임둔군이 설치되기 전에 죽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누가 지었는지도 불분명한 책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진번·임둔의 위치가 『후한서』에 기록된 현토·낙랑과 비교할 때 너무 떨어져 있어 믿기 어려운데, 따라서 후대의 기록들에 『무릉서』를 인용하지 않았다. 설혹 이병도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진번·임둔의 절반은 없어지고 우리 민족의 땅이 된 것이니 그쪽으로 온조왕이 지날 수 있었던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대륙에서 건국된 백제는 낙랑군의 서쪽에 위치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온조왕 13년 조에 왕이 신하들에게 “나라의 동쪽에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한반도에서라면 백제가 낙랑의 서쪽인 바닷속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니, 낙랑이나 백제나 한반도에 있었다는 주장이 명백한 잘못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병도는 온조왕이 ‘동쪽에 낙랑, 북쪽에 말갈’이 있다고 말한 것은, ‘동쪽에 말갈, 북쪽

23) 이병도, 「한사군문제의 연구」, 『한국고대사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150쪽

에 낙랑'인데 방향이 서로 바뀐 잘못이라 설명했다.²⁴⁾ 온조왕을 이웃 나라들의 위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군주로 몰고 말았는데, 필자는 이러한 이병도의 허황한 주장을 학계에서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후 고이왕은 246년에 낙랑의 변경을 쳤으며, 분서왕도 304년에 낙랑의 서쪽 현을 공취했다. 이때는 낙랑군 남쪽에 대방군이 있을 시기로, 만약 백제가 한반도에 있었다면 북쪽으로 대방군을 거치지 않고는 낙랑을 직접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설령 북쪽으로 대방을 지나 낙랑을 친다 해도 그곳은 낙랑의 서쪽이 아니라 남쪽이어야 맞다.

끝으로 신라의 경우로 하대의 패수에 대한 기록을 보기로 하겠다. 『삼국사기』성덕왕 34년(735) 2월 조에, “사신 의충이 돌아올 때 (당 현종이) 패강 이남의 땅을 우리나라에 주었다.”는 구절이 있다. 패강은 패수로 인정되고 있는데 패강 이남은 고구려의 옛 땅으로, 당나라에서 차지하고 있었으나 신라에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나라에서 땅을 그냥 줄 리는 없고, 신라가 그 지역을 이미 실력으로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신라의 9주에 고구려의 남쪽 지경(地境)에 둔 3주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서쪽의 한주에 대해 『삼국사기』「지리 2」조에 이렇게 썼다.

“한주는 본래 고구려의 한산군을 신라가 빼앗고 … 황무현은 고구려의 남천현을 신라가 아우르고 진흥왕이 주로 만들어 … ”

이와 같은 사실은 진흥왕 때부터 당나라에서 신라왕에게 ‘낙랑군공’이란 호칭을 쓴 것에서 알 수 있는데, 진흥왕이 이미 빼앗은 고구려의 땅이 발해 연안의 낙랑군 지역이라는 뜻이다.

또 위 패강이 북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당나라 재상 장구령의 『장구령집』「여 신라왕 김흥광칙」에 보인다(김흥광은 성덕왕의 휘).

“경(卿)이 패강에 군영을 설치하려는 것을 알았소. 그곳은 발해에 대응할 요충이고 또 녹산과도 서로 마주보고 있소.”²⁵⁾

패강과 녹산(祿山)이 마주본다고 했는데 이 녹산에 대해서는 『자치통감』「진기(晉紀)」‘영화 2년’ 조에, “처음 부여는 녹산에 있었으나 백제의 침략을 받아 … ”라고 했다. 백제가 대륙에 있었기에 녹산의 부여를 친 것이므로, 앞에서 본

24) 이병도는 일제강점기인 1934~37년의 『진단학보』에 「삼한문제의 신고찰」을 7회에 걸쳐 실었는데, 이것이 2012년의 『이병도전집』 제4권인 『한국고대사회사론고』에 수록되어 있으며 위 내용은 122~3쪽 참조.

25) 『張九齡集』「與新羅王金興光勅」: “知卿欲于溟江戍,即與渤海衝要,又祿山相望.”

패수와 마주보게 되는 것이다.

5. 결론

패수와 열수는 한반도에 있던 강이 결코 아니며 요동군·낙랑군(지금의 북경·천진)을 지나 발해로 들어가는 같은 강이었다. 이것은 학계의 고대사 지리 체계가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반도사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중국의 동북 군현이나 갈석산 및 장성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 단편적으로 언급한 고구려·백제·신라의 건국지와 도읍 등 주요 지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활성화되어, 대륙에서의 웅대했던 역사를 하루 빨리 복원해내야 한다. 더욱 근본적인 과제는 거의 방기되고 있는 고조선 2천 년의 대륙에서의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는 연구들이 절실하고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앞으로 학계의 깊은 반성과 함께 자유로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재야학자들과의 토론이 심도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부족한 이 글에 대해서도 비판과 질정을 진심으로 기대한다.